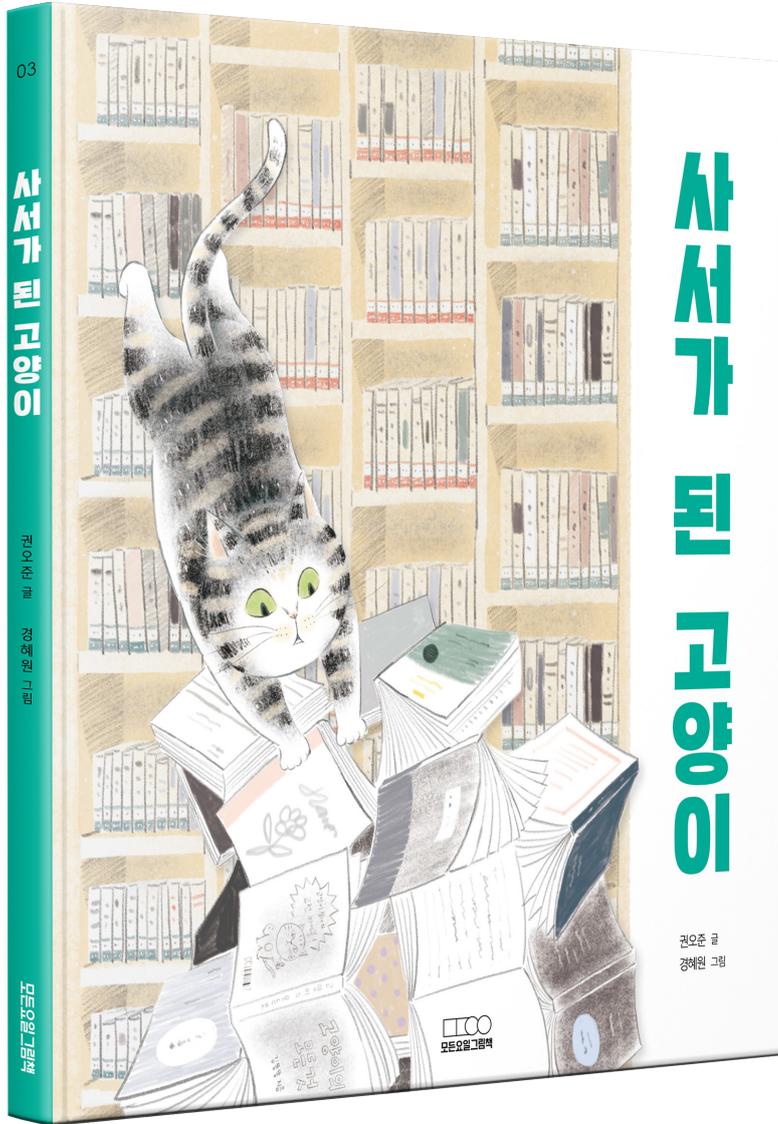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사서가 된 고양이>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KBBY
추천 도서

학교
도서관저널
추천 도서

현직
교사 추천

사서가 된 고양이

권오준 글 | 경혜원 그림 | 40쪽 | 13,000원 | ISBN 978-89-255-7852-1 (77810) | 초등 저학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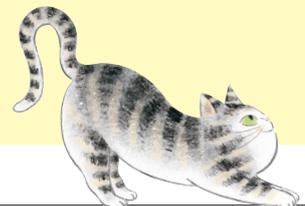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2-1 봄 1. 알쏭달쏭 나

2-1 국어 3. 마음을 나누어요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해마다 학급 임원을 선출하는 날이면 반 아이들은 설레고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사실 이날은 담임 교사에게도 긴장되는 날이지요. 학급을 대표하고 이끄는 친구들의 역할은 저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학급을 대표하는 이로서 가져야 할 고전적인 덕목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친구들이 학급 임원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담임 교사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지나 보면 그 걱정이 얼마나 설부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책 《사서가 된 고양이》속 호기심 많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고양이 루루도 언뜻 보기에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의 도서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이런 루루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가 된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루루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사서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루루가 저절로 사서 일을 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루루에게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믿음만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털이 날린다고 루루의 이야기방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는 친구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 주었고, 관장님은 루루의 발톱이 책을 망가뜨리자 혼내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루루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줍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이들이 주변에 많은 아이들은 실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죠. 실령 끝끝내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어 주는 이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역할은 그저 기다리고 지켜봐 주는 것, 묵묵히 때로는 열렬하게 아이들을 힘껏 응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서가 된 고양이》가 도서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 만큼 제시된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방지축 사랑스러운 고양이 루루와 함께 아이들이 도서관과 책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김다혜(제주 노형초등학교 교사)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매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어 줄 때 빛나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 전문적학습공동체 ‘소풍’ 활동 교사
- 출판사 자문위원단 및 교사 서평단으로 활동



미션 1 : 고양이가 사서라고?

책을 읽기 전에 표지의 제목과 그림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사서가 된 고양이

권오준 글
경혜원 그림

①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 이 책의 제목은 《사서가 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여러 특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고양이가 사서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②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 고양이와 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책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도서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표지의 제목과 그림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서가 된 고양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이제 책을 펼쳐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어 보세요.)

미션 2 : 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이 책의 배경은 도서관입니다. 때문에, 곳곳에 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들が登場하는데요. 아래 단어들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올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장서인

- 책을 정리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해요.
- 보통 책장의 책을 빼서 읽고 이곳에 두면 사서 선생님께서 규칙에 맞게 정리해 주신답니다.



책 수레

-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을 말해요.



도서관 관장님

-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것처럼 도서관에는 이분이 계세요. 도서관의 최고 책임자를 말해요.



사서 선생님

- 책이 누구의 것인지 말해 주는 도장이예요.
- 이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도서관의 책인지 또는 누구의 책인지 알 수 있어요.

미션 3 : 사서가 된 ○○○

새로운 사서 선생님을 뽑기 위해 고민하는 관장님께
 루루는 자신이 해 보고 싶으며 당차게 나섭니다.
 자신은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높은 책장 위에도 훌쩍 뛰어올라 갈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은 사서가 된다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사서 선생님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관장님께
 여러분이 사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봅시다.



- 사서 선생님이 하는 일들 -

-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사람들이 책을 대출, 반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을 관리하고 순서에 맞게 정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 주세요!

관장님, 제가 사서를 해 보고 싶어요!

저는



미션 4 : 나만의 장서인 만들기

장서인은 누구의 책인지 알려주는 도장을 말해요.
《사서가 된 고양이》속 도서관에서는 루루의 발 도장을
특별한 장서인으로 삼았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에 찍을 장서인을 멋지게 디자인해 보세요.



의 책

루루처럼 손이나 발에 물감을 묻혀 찍어도 좋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나 내 이름을 활용한 장서인을 디자인해 볼 수 있어요.

미션 5 : 나는 나는 자라서

사서가 된 루루는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책을 자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루루의 뽀족한 발톱과 말랑한 발바닥은
 도서관의 멋진 장서인이 되었지요.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특징은 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래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의 꿈: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나의 특징



그 이유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특징



그 이유는?

루루의 뽀족한 발톱은 책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도서관의 멋진 장서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멋진 장점이 될 수도,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미션 6 : 책으로 하는 숨바꼭질



《사서가 된 고양이》에는 그림을 그리신 경혜원 작가님의 책을 비롯해 실제로 출간된 다양한 그림책들이 10권도 넘게 숨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에 등장하는 책을 찾아 읽어 봅시다.



내가 찾은 책 목록

| 번호 | 책 제목 | 작가 | 출판사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사서가 된 고양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점을 가진 책을 찾아봅시다.

| 번호 | 책 제목 | 비슷하거나 같은 점 |
|----|------|------------|
| 1 | | |
| 2 | | |

내가 찾은 책 중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도서관에서 대출해 봅시다.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빠질 준비가 되었나요?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사서가 된 고양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같은 길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책과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에게
또 다른 책을 보여 주고 싶다면



《아무것도 없는 책》
레미 쿠르쥬 글·그림 | 이성엽 옮김

도서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책 무덤에 사는 생쥐》
원유순 글 | 윤태규 그림

어린이와 고양이의 '환상의 케미'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시큰둥이 고양이》
소피 블랙올 글·그림 | 김서정 옮김



《레츠와 고양이》
히코 다니카 글 | 요시타케 신스케 그림 | 고향옥 옮김